

# KODEX 헬스케어 ETF (266420)

**Kodex** 는 한국을 대표하는 ETF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의 ETF 상품 브랜드입니다.

2023년01월31일 기준

준법감시인 승인필 202301-2ETF78

국내 헬스케어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로 구성된 KRX 헬스케어 지수의 수익률을 추적하여 투자 선택재산을 운용하는 ETF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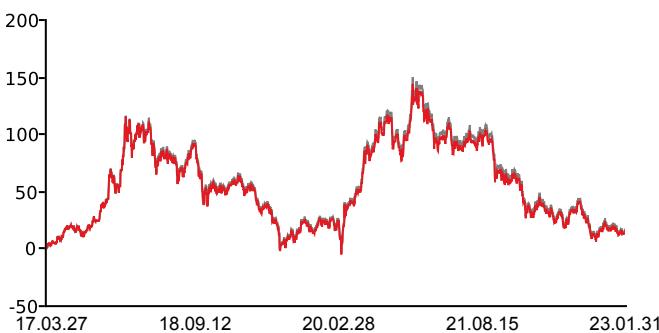
## 누적수익률(%)

	1개월	3개월	6개월	1년	설정후	연초이후
KODEX 헬스케어	-0.87	-3.63	-15.28	-14.02	13.26	-0.87
기초지수	-0.90	-4.03	-15.57	-14.12	14.84	-0.90
기초지수 대비	0.02	0.40	0.29	0.10	-1.57	0.02

※ 분배금 재투자를 가정한 세전 수익률 기준입니다.

## 수익률 그래프(%)

■ 펀드 ■ 기초지수



※ 분배금 재투자를 가정한 세전수익률 기준입니다.

※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.

## 업종 비중(%)

의약품	89.65
서비스업	4.97
의료정밀	3.96
금융업	1.42

## 상위 10종목(%)

셀트리온	21.30
삼성바이오로직스	16.10
셀트리온헬스케어	7.59
유한양행	3.91
SK바이오팜	2.63
한미약품	2.46
SK바이오사이언스	2.12
알테오젠	1.76
셀트리온제약	1.49
에스디바이오센서	1.39

※ 포트폴리오 구성종목은 PDF구성내역에 기초한것으로 실제 보유내역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투자 위험 등급 : 1(매우 높은 위험)					
1	2	3	4	5	6
매우 높은 위험	높은 위험	다소 높은 위험	보통 위험	낮은 위험	매우 낮은 위험

\*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신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

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,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.

## 지수소개

KRX 헬스케어 지수는 2016년 9월 정기 변경일 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서 글로벌산업분류인 GICS(경제섹터 – 헬스케어) 기준으로 변경하여 산출합니다. 이 지수는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을 중심으로 유니버스(KRX BMI) 선정 후 KRX종목구성 기준을 충족하는 종목을 모두 편입하여 유동시가총액 방식으로 산출되며, 2007년 1월 2일(1,000 포인트) 기준으로 매년 1회 지수 정기변경이 이루어집니다.

※ 정기변경: 연 1회(9월)

## 기본정보

펀드명	삼성 KODEX 헬스케어증권 ETF[주식]
기초지수	KRX Health Care
펀드순자산총액	296.22억원
1주당 NAV	11,393.24원
총 보수	연 0.09%(지정판매 0.005%, 집합투자 0.065%) (신탁 0.01%, 사무수탁 0.01%)
최초 설정일	2017.03.27
상장일	2017.03.28
분배	분배금 발생 시 분기 지급
운용회사	삼성자산운용
사무수탁회사	신한아이티스
수탁은행	하나은행
환매수수료	해당사항 없음
환매방법	유가증권 시장을 통한 매도, 지정참가회사를 통한 해지에 의한 환매

※ 증권거래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## 거래정보

거래소	한국거래소
표시통화	원
거래단위	1주
설정단위	100,000주
거래소코드	266420
ISIN코드	KR7266420009
블룸버그 Ticker	266420 KS <Eq>

## 투자분배금 지급현황

지급기준일	분배금액(원)
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.	

본 자료는 펀드의 단순 정보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써, 본 펀드의 투자광고 및 투자권유를 위해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삼성자산운용 홈페이지  
게시 외에는 본 펀드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에게 투자광고 또는 투자권유의 목적으로 제시되거나 제공될 수 없습니다.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 
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대해 삼성자산운용은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.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  
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, 환율변동,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른 원금 손실(0~100%)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원금손실 발생 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 투자자는  
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투자 전(간이)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 
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.